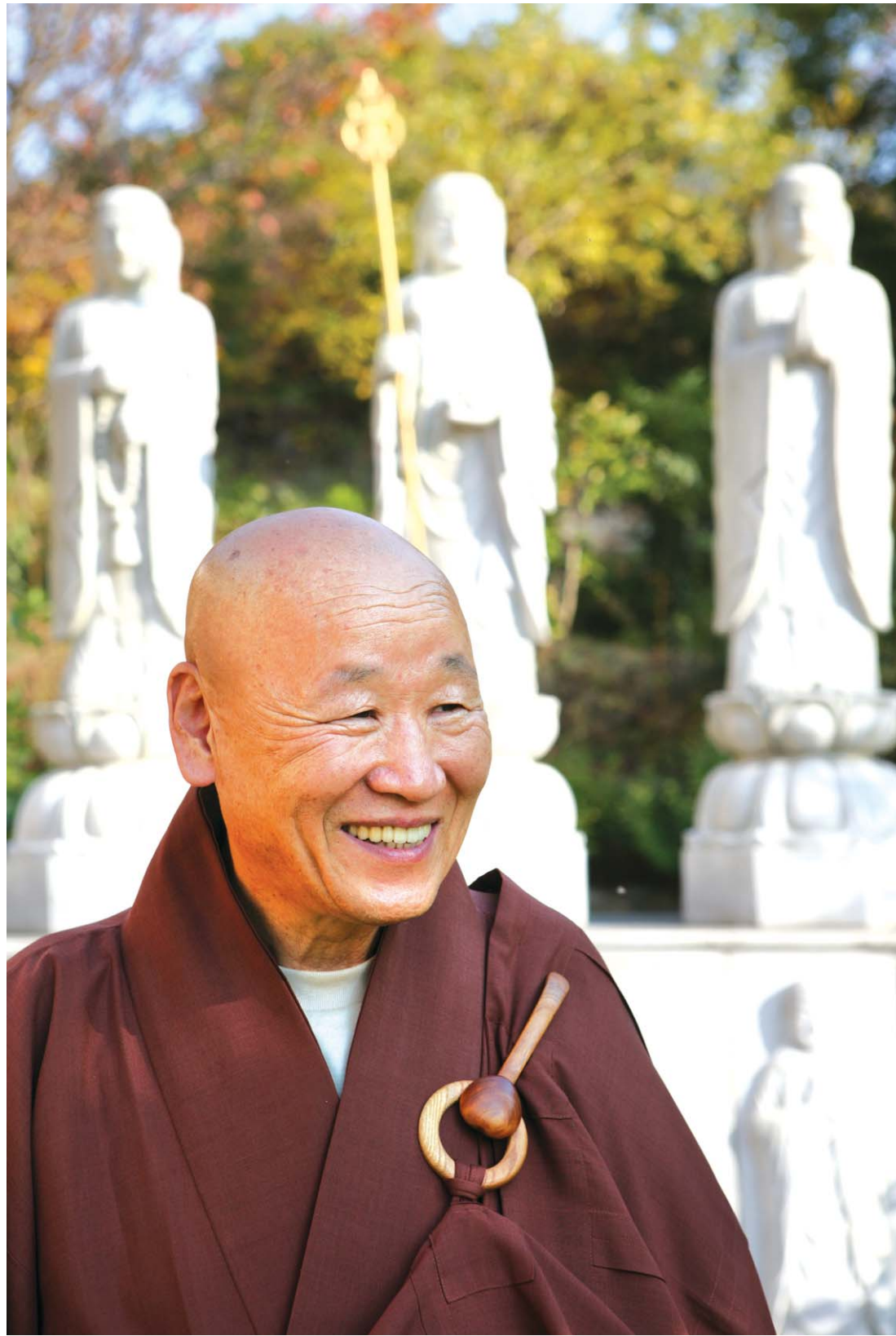


“한 번 지은 업은 반드시 돌려 받아요”



묘허 스님 1957년 상주 남장사에서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 63년 월허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불교전문강원 대학교를 졸업. 성암 강백으로부터 대교이력 및 <전등록>을 이수.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이래 제방선원에서 11하인거를 성안. 신탄진 신흥사 주지를 역임. 불교TV에서 <묘허스님의 49재 특강>을 강의. 지금은 단양 방곡사에 주석하고 있다.

묘허 스님(방곡사 회주)

단양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야단스러웠다. 여름 내내 풀과 있던 흥화빛과 겨자빛을 아낌없이 풀어내고 있는 산색의 화려함을 어디에다 비기랴 싶었다. 하얗게 핀 꽃을 머리에 이고 바람결 따라 노니는 역새 또한 한층 가을빛을 더하고 있다. 또 저만치 보랏빛 속부쟁이와 노란 산국이 피어있으니 화엄법회가 따로 없다.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수십 번을 돌고 돌아 단양 팔경 중 하나인 사인암(舍人岩) 팟말을 볼 수 있었다. 사인암에는 늙음을 환탄하는 시조 두어 편을 남긴 우탁(馬術)의 행적이 어려 있는 곳이다.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찾아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우탁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라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그 막사는 미군들의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화엄 스님만 목숨을 건졌다. 화엄 스님은 그 후 어머니의 뜻을 이어 일생동안 지장기도를 하였다.

“은사 스님은 전쟁이 끝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어요. 그러던 중 범어사에서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면서 출가의 뜻을 굳혔고, 동산 스님의 상좌가 되었어요. 은사 스님은 지장기도에 얽힌 일화와 선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아요. 은사 스님은 당시 수행에는 혹독한 분이였지만, 무애자재하게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셨던 따뜻한 분이였어요.”

묘허 스님은 불교를 알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겠다는 일념으로 동진 출가하였다. 본래 손이 귀한 집안이라 어머니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큰집에 대를 이을 손이 없어 양자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일곱 살, 엄마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워 큰

묘허 스님은 ‘영가 법문’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이미 불교TV 방송에서 ‘묘허 스님의 49재 특강’이라는 테마로 24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묘허 스님의 49재 법문은 논리 정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49재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깨우쳐 준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 없이 머무르는 기간은 49일 뿐입니다.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 데는 49일이 걸린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일생동안에 선업, 악업,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기업을 한 량없이 짓잖아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식(六識)에다 말나식을 더해서 칠식(七識)이라 해요. 이 칠식 작용에 의해서 선업과 악업을 짓게 되고, 지은 모든 업이 팔식(八識)인 아뢰야식에 잠재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칠식 작용이 멈추었다는 것을 뜻한다. 의식이 없어지니까 오관(五官)인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 작용을 못하고, 오관이 작용을 못하니 칠식 작용도 소멸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뢰야식에 잠재되어있는 업식만 남게 되는데, 이 업식이 등등 떠가지고 염부로 가게 된다.

“숨 쉴어지는 그 날 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왕(秦廣大王)전에 가서 눈으로 물 질과 모양과 빛깔을 대상으로 해서 지은 선악업을 가려내고 재판 받게 되어있어요.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2조강대왕(初江大王)전에 가서 귀로 듣고 지은 업이 선인지 악인지를 재판 받아요. 21째 되는 날까지는 제3승제대왕(天帝大王)전에 가서 코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좋은 향기 풍기면 좋아하고 나쁜 냄새 풍기면 싫어한 업을 재판 받아요. 27일 되는 날까지는 제4오관대왕(五官大王)전에 가서 입으로 지은 업을 재판 받아요. 35일째 되는 날은 제5염라대왕(閻羅大王)전에 가서 몸으로 지은 업을 재판 받아요. 염라대왕은 염부 10대왕중에 수석대왕이라, 5재를 잘 지내주어야 해요. 7째까지 안 가고 5재 때 윤회전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해요. 42일째 되는 날은 제6변성왕(變成王)전에 가서 마음으로 지은 업을 재판 받고, 49일째 되는 날은 제7태산부군(泰山府君)전에서 업정하게 재판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무기업을 얼마나 되는지 가려집니다. 가려내서 그 업에 따라서 미래세를 확정하고, 확정지어진 판결문에 도장하나 광 찍으면 영가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영가들은 자기의 업식대로 암소 자궁이든 암돼지의 자궁이든 찾아들게 된다. 스님은 수태되는 순간을 두고 “이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 들어갔다 한 숨 돌리고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인 것이지”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다.

“새로운 몸을 받기 전에 나쁜 업이 있더라도 잘 관찰하여 좋은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염부시왕님전에 부탁하는 것이 49재입니다. 49재를

나의 참모습에 의심품고 풀어보는 것이 화두 하루 수십법 마루 닦으며 ‘마음도리’ 깨우쳐

사인암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자, 산그늘 짙은 이곳에 절이 있을까 싶는데 저 멀리 지장보살상이 지남처럼 우뚝 서있다. 방곡사는 지장도량으로 가꾸어졌기에 다양하게 조성된 지장보살들과 마주할 수 있다. 묘허 스님이 불사한 신탄진 신흥사와 김해 원명사도 지장도량인데,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머무는 곳마다 지장도량으로 일구어 나간다. 묘허 스님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화엄 스님에 대한 보은의 길은 지장신앙을 널리 펼치는 것밖에 없다면서 은사스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은사스님은 평생을 수좌로 살다 가신 분이지만, 선방에서 거부좌하고 앉아 ‘이렇고’ 하는 것만을 권하지는 않았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의 참모습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것을 풀어보는 것도 화두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지런히 부르는 것도 화두일 것이니 무엇이든 놓지 말고 부지런히 할 것을 권했습니다.”

화엄 스님은 어머니의 권유로 일본 오사카의 대를 다녔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남양군도에서 근무하였다. 화엄 스님의 어머니는 매일 등을 밝혀놓고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아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막사에서 잠이 든 화엄 스님은 잠결에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막사 밖으로 뛰쳐나와 보니, 의대 다니던 시절 자신이 손수 만든 등이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뒷이기에 그 등을 따

집에 맘을 붙일 수가 없었다. 아이가 정을 못 붙이니 큰엄마는 큰엄마대로 정 붙이라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다.

“중학교 1학년 때 병이 났는데 마음의 병이라 어떤 약도 소용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친척들이 병문안 와서는 ‘절에 가서 공들여 낳은 지식인데, 교회 다녀서 병에 걸렸다’는 그런 말을 한 마디씩 꼭 던지고 가네요. ‘절에 다녀야 하는데 교회 다녀서 병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어린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고 절에 가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홀로 찾아간 곳이 상주 ‘남장사’였고, 그곳에서 화엄 스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게 되니 병은 씻은 듯이 나아 버렸고 그 후 칠십 평생 살면서 치과에 간 외에는 앓아 본 적도 없고 병원 간 적도 없어요.”

묘허 스님은 출가 후 십년 넘게 보광전의 마루를 하루를 두고도 수십 번씩 닦았다. 닦게는 하루에 50번씩 마루를 닦는 적도 있을 만큼 화엄 스님은 마음 닦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깨워 주었다. 마음의 때는 수행을 통해서 깨끗해 질 수 있으며, 설사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닦지 않으면 곧 더러워 질 수 있을 을 깨우쳐 준 은사님의 깊은 뜻을 출가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알고는 감사의 예를 올렸다고 한다. 그때가 바로 묘허 스님이 견처를 확인한 때가 아닌가 싶다.

생명 에너지를 글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음

민속죽염 20년전통
프랑스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체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체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체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체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체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zy.co.kr

전자불경 및 보리수 염주세트

전자 불경은 천수경 및 발원문,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으며 전자침을 장착하여서 음향변질이 없고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음보살님 주위에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 납니다. 불경을 들으면서 소원성취도 이루어요.

보리수 108염주 및 단주는 보리수 나무 뿌리로 가공하여 자연 문향이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효도 상품 및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전자 불경 염주세트는 인터넷 옥션에서는 80,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전자불경 + 108염주·단주 > 50,000원

제품 문의 : 016-494-0772
예금주 농협 415092-51-040120 사)한국호국불교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전문
석 · 굴법당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禪에서 본 般若心經
- 大顛和尚注心經 -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통한 선(禪) 입문(入門) 선사의 체험으로 새롭게 열어 보인 반야의 세계 그 깨달음의 안목이 돋보인다

이 책은 모두 금옥(金玉)과 같아서…… 비록 도행(道行)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쇠된 소견이 들어있는 자에게는 영약(靈藥)이 되며, 어둠속에 길 잃은 자에게는 밝은 등불이 되고, 문 밖에서 헤매는 사람에게서는 표본이 되는 주석이며, 바른 눈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표준이 되는 안목이다.

- 전 조계총림 방장 구산(九山) 스님

대전요통 지음 · 현봉 옮김
신국판/304쪽/값 13,500원

불광출판사